

합성수지 에멀전도료 고급화

95년 생산증가율 4.3%로 저조 ... 작업환경 개선요구 맞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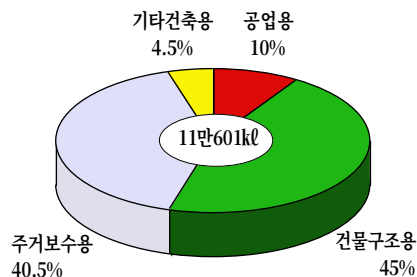
합성수지 에멀전도료 시장에 제품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다.

에멀전도료는 환경친화성을 바탕으로 당초 두자리수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분체도료 및 수용성수계도료와 같은 환경친화적 도료 신장률에도 훨씬 못미치는 저조한 성장에 그쳐 생산기업들이 수성광택을 중심으로 제품고급화에 나서는 등 향후 시장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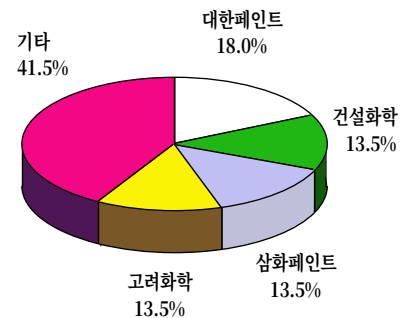
관련업체에 따르면, 95년 합성수지 에멀전도료 생산은 11만601kℓ로 94년 10만6013kℓ에 비해 4.3%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페인트 생산증가율인 10.1%에도 못미친 것으로 같은 환경친화적 도료인 분체도료 및 수용성수계도료가 각각 31.0%, 19.4% 신장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합성수지 에멀전도료 수요구성비



합성수지 에멀전도료 시장점유율



이는 합성수지 에멀전도료가 단일품목으로 최대의 시장이라는 큰 볼륨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유성페인트의 최대 장점인 광택도를 따라가지 못해 도장업체가 환경친화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체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도장업체의 변화에 따라 신장률이 전체 페인트 수요증가율인 1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각 생산기업들이 제품고급화의 일환으로 수성광택제품을 출시하면서 유성도료의 광택도를 따라잡는 등 급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건축용과 공업용 페인트의 고급화 기준인 분체화 및 High Soled화, 수성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같은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성광택 합성수지 에멀전도료 출시현황을 보면, 대한페인트가 수성광택에 내후성이 첨가된 '유니솔'을 출시하면서 수성광택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어 삼화페인트가 '아크로락카'를 출시하면서 대한페인트와 함께 합성수지 에멀전도료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수성광택 시장을 놓고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건설화학을 비롯 고려화학, 조광페인트, 벽산, 현대페인트 등 대부분의 페인트기업이 수성광택 에멀전도료를 생산하고 있어 건물내벽의 유성대체가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점유율을 보면, 대한페인트가 1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 건설화학, 삼화페인트, 고려화학이 각각 13.5%로 4개기업이 58.5%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41.5%의 시장을 놓고 조광페인트, 벽산, 현대페인트 등과 군소기업들이 치열한 시장다툼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합성수지 에멀전도료는 건축용 90%, 공업용 10%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용은 건물구조물용 50%, 주거보수용 45%, 기타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질별로는 콘크리트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목재, 철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KS 제품 가운데 내부용(KSM 5320)과 외부용 (KSM 5310)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수성광택제품이 10%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수지 에멀전도료 가격은 외부용이 18리터당 2만~3만원, 내부용이 1만5000~2만원 수준이며, 고급제품인 수성광택제품은 18리터당 4만5000원선으로 일반 KS제품보다 3배이상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합성수지 에멀전도료는 제품의 물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규격을 둘러싸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시장변화의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6/11/25>